

여의도 노크하는 한동훈, 험지 갈까 꽃길 찾을까

원희룡·박민식 장관도 몸풀기...출마 지역구·역할 주목

서울 종로 출마·관악을 '자객 공천' 등 다양한 가능성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현 정부 일부 장관들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년 총선에 나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출마 지역구가 어디로 정해질지에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그 대상이다. 당내에서는 이들의 출마를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는 게 적절할지 갖가지 의견이 제기되는 모습이다.

우선 한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당내에서 차출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분위기다. 최근 한 장관이 '보수 텃밭'인 대구를 찾아 보인 행보를 두고 출마로 마음이 기울었음을 보여준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20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한 장관은 출마하는 분위기로 봐야 한다"며 "당으로서도 한 장관을 차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장관 '차출'을 권의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장관의 '총선 등판론'이 현실화한다고 가정할 때 현재 당내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역할은 총선 때 당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선거대책위원장이자, 이 경우 당 전체 선거를 이끌어야 하는 만큼, 비례대표 앞 순번이나 당선권으로 분류되는 지역구를 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한 장관을 험지로 보내면 당이 '한동훈 효과'를 못 누리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그나마 어렵지 않은 지역에 출마시키거나 비례대표를 주고 선대본부장 역할을 맡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당의 '취약지'인 수도권의 바람몰이를 위해 한 장관이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서울 종로에 출마하거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예상지 중 하나로 거론되는 서울 관악을에 '자객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 일각에서 나온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본인을 희생하면서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당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한 장관의 출마지는 양당의 선거 전략과 구도가 정해지는 내년 1월 말~2월 초가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원 장관의 경우는 과거 서울 양천갑에서 3선 의원을 지내는 등 선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다면 당으로서도 여러 변수에 맞대응해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당으로 복귀할 경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개인 선거와 당 전체 선거를 병행할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만큼, 원 장관은 당의 전략에 따라 어느 지역구에 투입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현재 당 안팎에서 원 장관의 출마 지역 후보군으로 한 번이라도 거론된 적이 있는 곳은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등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개발 관련 성과를 앞세워 경기도 고양 등 경기 북부권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거론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 출국...파리 포함 5박 7일 일정

찰스 3세 초청...왕실 공식 환영식 개최지 투표 앞두고 엑스포 유치전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영국과 프랑스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영국 런던에서 20일~23일 머무른 뒤 프랑스로 이동, 23일~25일 파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펼친다. 오는 26일 귀국일을 포함해 5박 7일의 일정이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공항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이나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검은색과 흰색 정장 차림인 윤 대통령 부부는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한 뒤 1호기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이 초청한 첫 국빈이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런던에 도착해 동포간담회로 첫 일정을 시작한다.

다음날인 21일부터는 영국 왕실의 공식 환영식, 버킹엄궁 환영 오찬 및 만찬 등 국빈 일정들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의회에서 양국 관계와 성장, 미래 비전 등에 관해 영어로 연설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리시 수낙 총리와 다우닝가 10번지 관저에서 정상회담도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23일 찰스 3세 국왕과 작별한 뒤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박 3일간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주력한다.

오는 28일 예정된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각국 BIE 대표를 대상으로 오-만찬을 포함한 각종 행사를 통해 부산의 강점을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

선거구획정위 "국민 참정권 침해 현실화"

지지부진한 여야 선거제 협상

국회 조속한 확정 촉구 입장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일 여야의 지지부진한 선거제 협상으로 국민 참정권 침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촉구했다.

획정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로부터 선거구획정 기준을 통보받지 못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가운데 법정(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돼 참정권 침해가 현실화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국외 부재자 신고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됐고, 내달 12일부터는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획정위는 선거구 결정이 더 지체될 경우 유권자

의 알권리와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기회 등 정치적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시간 부족으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획정위는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받는 가운데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획정위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한 것은 지난 2월, 9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정 선거구 획정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였지만,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서 총선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해야 하는 획정위 업무가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이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35.6%...0.9%p 상승

리얼미터 조사...부정 평가 61.8%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

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0.9%포인트(p) 상승한 35.6%였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1.8%로, 0.4%p 내렸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10월 4주부터 최근 4주 연속으로 30% 중반대(35.7%→36.8%→34.7%→35.6%)를 기록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4.3%p ↑), 부산·울산·경남(2.3%p

↑)에서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5.7%p ↓)과 광주·전라(4.6%p ↓), 대구·경북(3.6%p ↓) 등에서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6.0%p ↑), 70대 이상(5.1%p ↑)에서 올랐고 20대(2.5%p ↓), 60대(1.3%p ↓)에선 내렸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아직도 봉안당에 보관하십니까?

**이제는 자연친화 수목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
무료 안치**

지역사회의 상생과 복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목장 무료안치를
진행합니다.

1. 광주광역시민(인근까지 인정)
2. 본 단체 회원에 가입한 분에 한함

수목장 장 점

-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만듭니다.
- 우리 수목장은 **낮은 관리비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365일 관리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의 추모**가 가능합니다.
- 묘지 관리에 대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광주시내권에서 20분 이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광주 수목장

24시간 연중무휴
☎ 062-449-4446